광주불교방송
BBS FM 89.7 MHz
www.kjbbs.co.kr

사찰문화연구소

신/대/현 연구위원

기록이 남아야 문화재도 삽니다

사찰의 역사 · 풍광 꼼꼼히 체크
13년 동안 매년 100여곳 답사
수집한 자료 사진만 수십만 컷
20권의 <전통사찰총서> 발간

"스님, 지난해 찍어두었던 청룡사 사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단청 문양도 사라지고 옛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꼭 간직하세요."

"우리절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 주니 이 고마움을 어떻게 표현할꼬."

2월 9일 오후 4시. 단종의 왕비인 정순왕후가 스님이 되어 평생 단종을 그리워하며 생을 마감한 서울 종로구 숭인동 청룡사 심검당. 사찰문화연구소 신대현 연구위원(43 · 문학박사)과 청룡사 주지 진우 스님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을 선물한 신 연구위원은 그동안 사찰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몇 년전부터 계속해 온 불사는 어떻게 되었는지를 주지 스님에게 꼼꼼히 물어본다. 또한 최근 새로 단장한 청룡유치원에도 직접 가 보며 사찰 변화의 모습을 일일이 카메라에 담았다.

1992년 사찰문화연구소의 출범과 함께 신 위원은 사흘에 한 번은 절을 답사하는 사람, 매일 사찰 자료를 모으고 뒤적이거나 사찰의 역사와 풍광 · 문화재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기획하는 사찰과 문화재에 빠진 사람이 됐다. 연구소는 이용부 전 종무관, 김규칠 불교방송 사장, 박세일 서울대 교수, 명호근 쌍용양행 사장 등 청년불교운동의 기수들이 불교문화의 진면목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음 세대에게 알리고 불교를 현대화하며 중흥시키는 발판을 삼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설립됐다.

"사찰은 불교의 참 정신이 깃들어 있고, 큰스님들의 발자취가 서려 있으며 몸과 마음을 맑게 할 수 있는 신행의 요람입니다. 그래서 사찰문화연구소를 설립하고 그동안 사찰의 연혁에서부터 소중히 보존해야 할 문화재, 하나하나의 성보에 깃들어 있는 의미, 그 절이 지니는 신앙의 성격, 관련 설화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사찰문화연구소 상근 연구원인 신 위원은 13년동안 매년 100여개의 사찰을 답사했다. 단순하게 셈하면 사흘에 하루는 절을 답사한 것이다. 그동안 수집한 사진만도 수십만 컷에 이르고 메모노트도 수백권에 이른다. 수집된 자료는 매년 지방별로 묶어 책으로 발간했고 올해 마지막 2권을 끝으로 총 20권의 <전통사찰총서>가 완간된다.

"사찰을 조사하다 보니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 가운데 오류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해 현재 남아있는 문헌을 일일이 대조해 가며 책을 만들었습니다. <전통사찰총서>는 사찰의 진수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안내서이자 저의 연구소가 10년 넘게 한 작업의 부산물인 셈이죠."

그 외에도 용주사, 낙산사, 봉은사, 보문사, 선본사 등의 사지를 편찬했고 <북한사찰연구>, <불교의 효사상>등의 책을 편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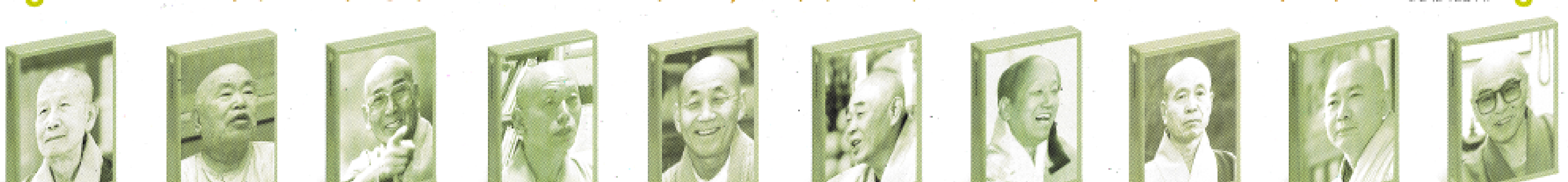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대학원 미술사학과에서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한 신 위원은 답사를 다니면서 성보의 가치를 모르고 방치하거나 없애 버리는 일이 많아 안타까울 때가 한두번이 아니었다고 말한다. 실제로 모 사찰을 방문했을때 아궁이에 현판이 땔감과 함께 놓여 있어 스님에게 그 뜻을 설명해 겨우 불소시게를 면한 적도 있다고 한다. 또한 터에 맞게 불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불사를 진행하는 모습이나 대웅전을 비롯한 여타의 전각에 현판을 가린 채 불사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면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어느해 가을 경북 울릉도를 답사했을 때의 일입니다. 사찰에 도착해 스님께 인사를 드리자마자 스님이 잠시 옆방으로 저희를 안내하더군요. 근데 옆방에 들어가자마자 장정 5~6명이 갑자기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그들은 사복경찰과 정보기관 관계자였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뜸한 곳이어서 간첩이나 도굴범으로 오인을 받은 거죠."

신 연구위원은 현재 매주 일요일 오전 6시 30분 전파를 타는 불교방송 사찰순례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다. 올해 <전통사찰총서>가 완간되면 사찰사전을 만들어 보겠다는 커다란 꿈도 가슴에 키우고 있다. 그 꿈이 있기에 신 위원은 또다시 답사할 사찰을 정하고 자료 수집에 착수한다.

글=김두식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마음이 밝으면 신이요, 마음이 편안하면 신이다.



목미는 길게 뽑고 통사람은 좀을 추녀 / 화산 스님 지음 (보광원 조실) 300부 한정
푸른 솟뿌리를 지나며 신발이 놀도 없네 / 청산 스님 지음 (삼각산 정토사 회주) 300부 한정
마음 한번 바꾸면 거기가 극락 / 법성 스님 지음 (전 사회복지법인 삼라원 이사장) 250부 한정
집착하지 아니하면 많고 작음에서 벗어난다 / 인환 스님 지음 (동국대 명예교수) 300부 한정
발 밑에 닿은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을 / 원광 스님 지음 (조포 신흥암 한주) 200부 한정
나의 참생명, 부처님 생명 / 현탁 스님 지음 (문사수법회 회주) 200부 한정
선회로 이어진 깨달음의길 / 범주 스님 지음 (속리산 달마선원장) 150부 한정
물 흐르고 꽃이 핀다 / 지안 스님 지음 (은해사 승가대학 원장) 150부 한정
나무로 만든 말이 밤에 울피우니 / 혜총 스님 지음 (감로사 주지) 200부 한정
법 지혜는 허물이 있는데 / 정소 스님 지음 (청보산 석탄사 조실) 300부 한정
조건 따라 생겨난 것은 조건 따라 사라지는 것 / 도성 스님 지음 (계종사 법주) 200부 한정
간작신 마루에 돌챌이 놓고 / 일운 스님 지음 (감악산 백련사 주지) 100부 한정
서바기 정토요 정토가 사바 / 도우 스님 지음 (삼각산 도선사 염불선원장) 300부 한정
계곡을 흐르는 물은 마르지 않는 법 / 지종 스님 지음 (모악산 불갑사 조실) 300부 한정
미혹한 사람은 입으로 말하고 / 혜성 스님 지음 (삼각산 도선사 회주) 300부 한정
믿음이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 / 성공 스님 지음 (안양사 조실) 300부 한정
천지는 나와 더불어 그 뿌리가 같고 / 구암 스님 지음 (전 법화종 종정) 300부 한정
생명을 나누어 주신 영혼의 어버이 / 효탄 스님 지음 (오봉산 오봉사 회주) 300부 한정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본뜻을 찾아 / 천운 스님 지음 (두륜산 대흥사 조실) 100부 한정
지혜로운 자는 미망을 이루고 어리석은 자는 생사를 이룬다 / 일휴 스님 지음 300부 한정
산꼭대기 뿌리 없는 조록은 바람이 불지 않아도 잎이 스스로 지더라 / 혜정 스님 지음 (속리산 법주사 회주) 300부 한정
물위에 비친 달빛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것처럼 / 정우 스님 지음 (서운산 석남사 주지) 200부 한정
금정산 산정에 바위들이 하늘 높이 날아 오르고 / 대접 스님 지음 (금정산 범어사 선덕) 150부 한정
나와 너가 따로 없는 곳에서 연꽃은 피어나고 / 법현 스님 지음 70부 한정
주장자를 들으니 삼천대천세계가 버릴 것이 하나 없고 / 지성 스님 지음 (팔공산 동화사 주지) 200부 한정
하루하루, 그때그때, 두두물물이 수행이고 좋은 날이고 진리 / 도엄 스님 지음 (동국대 불교문화대학 교수) 300부 한정
나의 또 하나 다른 생명으로 피어나는 꽃을 본다 / 진관 스님 지음 (불교인권위원회 공동대표) 300부 한정
부처도 죽이고 조사도 죽이고 쇠나무에 꽃이 피니 / 종성 스님 지음 (김제선원 조실) 300부 한정
평화통일은 진정한 대승보살행 / 법타 스님 지음 (조국평화통일불교 협의회) 300부 한정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에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불자님들이 다 함께
큰스님들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각 스님 별로 한정 판매를 실시합니다.
더불어 각 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드립니다. 이번 기회에 큰스님들을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1세트 (책 1권 + CD 1장)
책(양장) + CD = 정가 50,000원 ➡ 특별공급가 25,000원 (배송비 포함) ＊10권 구입시 20만 원 (배송비 포함) 구입문의 : 02-446-0393